

중동국가와는 최초로 한·UAE ‘공군회의’ 정례화

우리 공군이 아랍에미리트(UAE) 공군과 ‘공군 대 공군회의’를 정례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동국가와 공군 대 공군회의의 관련 MOU를 맺은 건 UAE가 처음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4월 15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라시드 무함마드 알삼시(소장) UAE 공군방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완(중장) 참모차장, 이태규(소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구상모(소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UAE 아잔 알리 알누아이미 공군준장이 배석했다.

이 총장과 알삼시 사령관은 한반도·중동 지역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국방·방산 분야



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우리 공군은 UAE에서 개최하는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와 ‘통합미사일방어훈련(IAMDOC)’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신임 조종사 44명 영공수호 최전선으로

혹독한 비행교육을 이겨내고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신임 조종사 44명이 탄생했다.

4월 22일 공군1전투비행단에서는 채운기(소장)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24-2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이 거행됐다.

이날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른 신임 조종사들은 기본 비행능력과 공중상황 판단 능력, 최첨단 항공기시스템 운용기법 습득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진정한 조종사로 태어났다.

신임 조종사들은 각자 부여받은 기종에 따라 전투기입문과정(LIFT) 또는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을 거쳐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최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등과정 수료식은 조국영공 수호에 헌신한 선배 조종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명예의 단상’ 의식을 시작으로 수료증서 수여, 성적 우수자 시상, 빨간 마후라 수여 등의 순으로 열렸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참모총장상의 영예는 정명진·경규석·김준호 중위에게 돌아갔다.

공군군수사, 국산항공기 운용국 국제회의 개최

우리 국산 항공기를 수입해 운용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제14회 K-TCG 회의 및 제8회 SMG 국제회의’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성남시 밀리토피아호텔 바이마린에서 열렸다.

공군은 2010년부터 우리 국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와 ‘국산항공기 국제기술협력기구(K-TCG)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국산 항공기 수출 증가로 국산 항공기 운용국들의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고 해당국 간 비행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행안전 관리자기구(SMG) 국제회의’도 함께 열고 있다.



공군군수사령부와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개최된 올해 회의에는 K-TCG 회원국 중 튀르키예(KT-1T)·페루(KT-1P)·필리핀(FA-50PH)·세네갈(KA-1S)이, 비회원국 중에서는 태국(T-50TH)·폴란드(FA-50GF) 등 7개국이 참가했다.

UAE ‘Desert Flag’ 훈련 성료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3주 동안 진행된 2025 Desert Flag 훈련에 참가했던 우리 공군이 5월 14일 무사히 복귀했다.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린 데저트 플래그는 UAE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올해는 우리 공군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13개국이 참가했다. 지난 4월 15일 김해기지에서 출발한 우리 공군은 C-130H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화물의장사·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항공특수통제사(CCT) 등 3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훈련단은 주야



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과 합동 고공강하 훈련도 이뤄졌다.

공군 준사관후보생 225명 임관

공군교육사령부는 6월 27일 부대 최윤희관에서 순석락(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114기 준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총 255명의 준사관이 탄생했다.

임관식은 공군 각급 부대 준사관 대표를 포함한 주요 내빈과 임관자 가족 및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 증서 및 상장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공군교육사령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관한 255명의 신임 준사관들은 3주간 국방 및 공군 정책 이해, 항공 우주력 발전 비전, 미래전의 양상 등의 교육을 이수



했다. 또 MZ세대의 특성 이해와 팀워크 증진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교육 등을 받고 최정예 준사관으로 거듭났다.

공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군은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이 주관한 회의는 항공우주력에 대한 인식 제고·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부승찬·유용원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 국내외 방산기업 등 항공우주 분야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동섭 연세대 총장 개회사, 이영수 참모총장 환영사,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과 이건완 ADD 소장 축사, 송순호 연세대 교수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토



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환영사에서 “항공우주력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자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전 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공군은 국가안보 핵심 요소인 항공우주력을 통해 공중·우주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4월 22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전투비행단장 김중수 준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포상, 심의 의결 등을 진행하였다.

제1전투비행단과는 4월 16일 회장단이 비행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부대 인근 식당에서 단장

을 포함한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 현역 및 예비역 간 유대강화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Space Challenge 2025에 회원 20여명이 동참하여 현역들을 격려하였으며 현충일에는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참배 및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5월 22일 광주지부 임원 12명을 초청하여 연례행사로 계획된 달빛 친선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전후반기 상호방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두 지부 간 정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으며, 후반기에는 대구지부 임원들이 광주지부를 방문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0일에는 호국보훈의 달 계획

행사인 호국안보순례행사를 실시하였다. 회원 44명이 경남 통영시 충렬사와 이순신공원, 거북선과 판옥선 내부를 관람하는 등 세계역사에 길이 남은 이순신 장군의 당시 활약과 옥포대첩의 크나큰 승전을 올렸던 역사현장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호국안보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강형근) 회원 10명이 5월 22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 헤스 미 공군대령 10주기 추모식에 참가하였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추

모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공군전우회 중앙회장, 딘 헤스 대령의 세 아들 등과 함께 6.25 전쟁 당시 1000여명의 고아를 제주도로 안전하게 후송하는 등 고인이 생전에 펼쳤던 헌신과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6월 25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의 초청으로 회원 25명이 부대를 방문하여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식과 함께 부대현황 보고, 견학 및 오찬을 같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강릉기지에서 출격

하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10전투비행단대의 강릉기지 전공탑 등을 둘러보며 공군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으며, 앞으로 비행단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5월 9일 경기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양진혁 육군 1사단장 주관으로 거행된 “제76주년 육탄 10용사 추모식”에 참석하여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 고지탈환작전을 수행하다 장렬히 전사한 10명용사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였다.

공군전우회에서는 중앙회장의 조화를 조치하였으며, 인천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가하여 고인들의 위훈을 기림으로써 지역사회 안보행사에 예비역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천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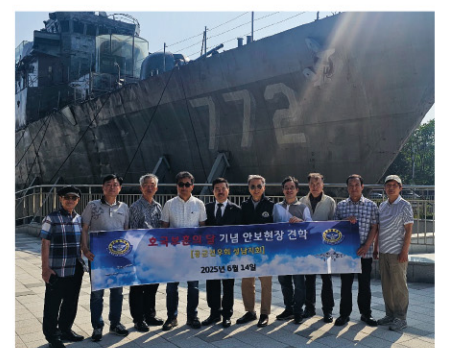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6월 25일 6.25전쟁 참전유공자회가 주관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에 지회장 및 임원단 등이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

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넋을 달래고 당시의 전과와 호국정신 등을 되새기며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였다.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6월 14일 2025년도 전반기 산업안보견학 행사를 평택항만공사, 아산현충원, 2함대사령부 등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천안함, 서해수호관 등 기존의 안보현장 답사와 더불어 글로벌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의 항만 인프라와 해양레저, 안전분야 발전 등을 돌아보며 세계제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관내 차상위취약계층을 위한 제철김치(열무김치) 나눔행사를 재개하였다. 회원들의 정성으로 진행된 2025년 나눔행사는 총 4회로 계획하

였으며, 6월 18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1500kg의 김치를 나눔하였고, 7월 중에 2회를 추가하여 총 3000kg의 김치를 나눔할 예정이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신종균)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12일, 42명의 회원들이 모여 부여 백제문화단지과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방문하였다. 회원들은 이번 전사적지 견

학을 통해 독창적이고 찬란한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국립수목원에서는 정이품송 등 상징성, 역사성이 있는 나무의 유전자원 보존상태를 둘러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회

진주시회(지회장 조현철)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19일 안보관광을 진행하였다. 회원 및 가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사와 해군 2함대사를 견학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의 뜻을 기렸다. 특히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현장을 둘러본 회원들은 남북대치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보태세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LA지회

미국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6월 20일 정기모임을 가져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였다.

특히 이자리에는 온성철(공사 4기), 조금철(병 18기) 등 2명의 참전용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고 지난 6월 소전하신 삼현상전우를 비롯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전우회 중앙회장의 격려사 낭독을 시작으로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공군전과, 김종립 애국지사의 삶, 스티븐 저격과 해외독립운동, 딘 헤스 대령의 한국사랑 등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친목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양평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치과



양평루트치과의원

YANGPYEONG ROOT DENTAL CLINIC

13년 경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1:1 진료,
175평 대규모, 구강내외상센터, 첨단 장비 시스템을 경험해 보세요.

전화 상담 & 예약

031-775-2875

오시는 길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188 양평 새마을금고 본점 3, 4, 5층

공군전우회 특별우대혜택

임플란트 최대 **50%** 할인

-99만원 → **49**만원



양평공군전우회장

김수영 상임고문

010-2771-2772

김경오 회원, 공군본부 하늘사랑 아카데미 강연



김경오 회원(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이 공군본부에서 참모차장과 지휘관 참모, 여군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늘사랑 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하였다.

25-2차 강연에서 자신의 자서전 ‘나는 매일 하늘을 품는다. - 여성 파일럿,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항상 최초의 타이틀이 따라 붙은 화려한 경력 이면에 있

었던 차별과 극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과 열정을 후배들에게 차분히 전달하였다.

김경오 총재는 1949년 2월, 10대의 나이로 여성항공대에 입대하여 수많은 차별과 역경을 딛고 1952년 단독비행에 성공하였으며, 공군대위로 전역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1963년 당시 미국에서 기증받은 비행기 1대를 가지고 귀국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국제항공연맹 부총재를 역임하며 항공분야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여권신장에도 많은 역할을 하면서 도전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후배 양성을 위해 이번 하늘사랑 아카데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창립 25주년 행사



2000년 5월 20일에 창립된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가 5월 17일부터 1박 2일간 무주덕유산리조트(유스타운)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회원과 가족 등 18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특히 예명 “현석”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초대회장(백석

현, 병165기)이 참석하여 어려웠던 옛 추억을 소환하여 주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등으로 단체 모임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가 오랜만에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부분에서 로카피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ROTC 장교회, 제12차 정기총회

ROTC장교회는 5월 29일 공군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김석찬(학군 11기) 장교회장과 김형구(학군 7기) 역대 장교회장을 비롯하여 학군44기까지 다양한 기수의 장교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 승인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추진경과를 보고하였고, 연말인 12월 19일 금요일에 공군호텔에서 공익법인 설립총회와 더불어 학군 2기, 12기, 22기, 32기, 42기 통합임관 150주년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역 공군본부 및 교육사령부 장성급 인



사와 전임 참모총장이신 공군전우회장을 비롯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각 군을 대표하는 단체를 외빈으로 초청하여, 공군학성군사학교 및 총 11개 대학의 공군 ROTC학군단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ROTC 장교회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성대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사랑회, 포천시 피해주민에 위로금 전달

공군학사장교단의 일원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모임인 공군사랑회는 4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를 찾아 3월 6일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공군본부 이홍재 군수참모부장(소장), 이동면장 등도 함께했다. 또한 공군사랑회는 이날 오폭 사고 이후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육·공군 장병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공군사랑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을이 정상 복구되어 활기찬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상유공자회 안보현장견학 실시

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5월 15일 춘계 안보현장견학으로 독립기념관을 탐방하였다.

2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독립기념관 전속해설사의 안내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호국정신과 희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고 애국심을 함양하였으며,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하 회원, 출판기념회 성료

이영하 회원(예 중장, 공사 22기, 전 레바논대사)의 시집 ‘하늘에 닿은 날갯짓’ 출판기념회가 6월 17일 공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군 전투조종사의 경험이 묻은 독특한 시각으로 하늘을 향한 애정과 꿈을 담은 한편의 여정으로 평가되는 시집 출판기념회에는 약 50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가하여 공연과 축시 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영하 회원은 “많은 지인과 선후배, 가족친지 및 문학인들이 찾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문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문학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영하 회원은 5월 24일에 샘문뉴스가 주최하는 2025년 신춘문에 SAM 문



학상 공모전에서 샘문특선상을 수상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대중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개인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적을 기리는 제5회 글로벌컬처명인대상 시상식에서 국민배우 탤런트 정혜선씨 등과 함께 수상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7월 8일에는 제23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석환 회원, 삼양화학공업 대표이사 선임



정석환 회원(예 소장, 공사 31기, 전 병무청장)이 5월 14일 삼양화학공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삼양화학공업은 조명탄, 연막탄 및 최루탄 등을 제조하는 방산 전문기업이며 K2전차 방탄장갑을 독점 공급하는 삼양컴텍을 소유하고 있어 K방산을 이끄는 방산전문기업으로 정석환 대표이사 선임 이후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터키의 신형 전차 알타이에 특수 방탄장갑을 수출하는 등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환 회원은 공군에서 20전투비행단장, 차기전투기 공군평가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등을 거쳤고 전역 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제26대 병무청장을 역임하여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